

왕성한 기업 활동 바탕으로 광고시장 선진화 기해야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한류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역사적인 문화 융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고는 시대의 문화를 담는 창이자, 우리 기업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광고시장에는 광고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와, 일부 매체의 시장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들로 인해 우리 광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업 간의 경계와 영역이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한 광고기법을 활용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광고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널리즘에 입각한 정보와 뉴스가 유통될 수 있는 건강한 광고 문화 창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광고·미디어 산업도 발전합니다. 자유롭고 왕성한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광고시장의 선진화와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 주체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정체